

#### 4) 굿의 사례

위에서 본 굿의 여러 종류 중에서 씻김굿과 신굿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씻김굿

일시 : 1991. 1. 13. 14 :30 ~ 1. 14. 05 :50

장소 : 조례동 167-6번지

무당 : 박경자 · 김천심(여, 45)

약사 : 김순태

이번 굿은 주인 강씨의 남편 박광수가 강패들에게 맞아 객사했는데 그 혼을 씻기기 위해 하는 혼맞이 씻김굿이다. 강씨는 사건이 생긴 후 점쟁이 김천심을 찾아가 남편의 넋을 위로하는 방도를 찾았다. 여기서 씻김굿을 하기로 정하여 굿을 한 것이다.

순천지역에서 굿이 이루어지는 경위는 대개 이런 식이다. 단골들은 처음에 신도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점쟁이를 매개로 하여 굿을 하고 있다. 단골과 점쟁이들 사이에 공생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굿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 점쟁이들은 '견습무'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점도 치며, 굿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번 굿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① 혼맞이

객사한 넋의 씻김굿을 할 경우 죽은 장소나 그 근처에서 혼맞이를 한다. 객사한 경우가 아니면 묘 앞에서 하는 산굿을 한다. 이번 혼맞이는 순천 시내를 흐르는 동천가에서 이루어졌다. 이 근처에서 박광수의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강변에 음식을 차려놓고, 오방신에게 혼을 내줄 것을 부탁하여 산 닭으로 '대신맥이'를 하고 혼을 맞이하였다. 신칼의 꽃술로 넋전을 집어 망자의 부인 강씨에게 받게 하였다. 이어 고를 풀고, 옷과 신발을 태우고 소금을 뿌렸다. 아까 맞이한 넋전은 징 속에 넣어 혼을 담아 온다고 하여 강씨가 들고 오게 했다.

##### ② 조왕굿

부엌에서 이루어졌다. 간단히 조왕상을 차려놓고, 징을 치며 조왕경을 구송하는 것으로 끝났다.

##### ③ 제석굿

안방에서 이루어졌다. 단골 박씨가 성주상을 마주하고 앉아 정쇠를 치면서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를 부른다. 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고하며 굿의 목적이 불쌍한 망자의 넋을 씻겨 극락으로 천도시키는 데 있음을 알리고 당산·철류·성주·조상들을 청해 들었다. 이 굿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리고 여러 신들이 부디 강림해서 보살펴주시기를 축원하는 것이다. 공심풀이를 한 다음 일어서서 말려주야를 부르기 시작했다. 양손에 신칼<sup>1)</sup>

을 들고 가만가만 춤을 추며 무가를 부른다. 이어 말려주야, 당산풀이, 제석풀이, 성주풀이, 노적담그기, 업담그기, 하님별감, 고틀이, 천근소리, 주잔풀이, 액막이소리 순으로 무가를 부른다.

씻김굿에서 성주굿은 독립된 거리로 존재하지 않고 제석굿에서 행해지고 있어 특이하다. 제석굿은 다른 순서보다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단골이 앞서서 굿을 하는 앓음반과 서서 하는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석풀이, 노적담그기, 업담그기 세 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즉 순천 씻김굿은 12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의 세 거리를 독립된 것으로 보면 그것이 들어맞는다.

#### ④ 낫맞이굿

처음 행해졌던 혼맞이는 집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의 것은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주굿이 행해진 곳과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지역의 낫올리기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당산풀이를 하고, 육감을 보아 십이대왕으로부터 낫을 맞아들이는 말미야를 불렀다. 이어 천근소리를 하고

---

1) 크기가 10cm 정도로 낫쇠로 된 칼 부분은 날이 서지도 않은 것이다. 오히려 손잡이 끝에 달린 무성한 꽃술이 칼날 부분을 가려서 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란 천을 수십 개 치렁 치렁 매달아 만든 꽃술은 낫올리기를 하거나 낫춤을 출 때 쓰인다.

“앙와신아 가자서라 녀풀이 가자서라... ..”를 부르며 강씨의 머리 위에서 망자의 녀전을 신칼의 꽃술로 들어올렸다. 이어 신광주리와 망자의 옷을 들고 염불을 하며 춤을 췄다.

#### ⑤ 오구굿

원래 마당에서 해야 하는 곳인데, 공간이 없어 안방에서 계속되었다. 단골 박씨가 앉아서 장구 공편을 치며 바리테기를 불렀다. 이어 오구시루에서 실을 뽑아 손가락에 감으면서 망자가 이 곳 받아 극락세계 가기를 축원했다. 계속해서 “나무야 나무야... ..” 하는 염불을 하고 천근소리를 한 후, 밀가루를 첩로 받아 만든 오구가리를 들여다보며 망자가 무엇으로 환생했는가를 점을 쳤다. 오구굿에는 이렇게 망자가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점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데, 오구가리 위에 만들어진 박자국 모양의 흔적을 보고 뱀이나 새 로 태어났는지, 혹은 소나 말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점을 치는 것이다.

#### ⑥ 고평이

고풀이는 조무 김천심이 맡아서 진행했다. 현관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서 고평을 풀었다. 김천심이 강신무여서 그런지 지금까지 진행되던 단골 박경자의 고평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고평을 연출했다. 고평로 미망인 강씨를 문지르고 묶어 풀면서 도무를 하며 공수를 했다.

#### ⑦ 씻김

박경자가 진행했다. 영돈을 간단하게 만들어 씻김을 했다. 쌀과 돈·뉘를 넣은 밥그릇 위에 냄비 뚜껑을 덮고 손가락으로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노래하다가 행물·고춧물·맑은 물로 씻김을 했다.

#### ⑧ 길뒹음

질베 위로 신광주리를 오르내리며 길을 뒹는다. 망자가 저승으로 갈 길을 뒹는 의미이다.

#### ⑨ 거리굿

굿소리 듣고 찾아온 잡귀를 돌려보내는 거리이다. 망자의 옷과 신발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굿이 끝난다.